

# 중국 초기 문인집회의 문학창작환경과 문학풍격\*

姜必任\*\*

---

◁ 목 차 ▷

---

- I. 서론
  - II. 문인집회의 재구성
    - 1. 西園集會
    - 2. 上巳契會와 平吳 기념 華林園禊會
    - 3. 金谷集會
    - 4. 蘭亭集會
    - 5. 謝氏家族集會
    - 6. 廬山白蓮社集會
    - 7. 戲馬臺 送別集會
    - 8. 文惠太子 釋奠祭會
    - 9. 鼓吹曲 創作集會
  - III. 문인집회에서의 문학창작
    - 1. 문인집회의 창작환경
    - 2. 집체창작과 문학형식
    - 3. 집체창작과 문학내용
  - IV. 결론
- 

## I. 서론

동아시아의 고대 문인들은 문인집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문학적으로 절차탁마 하면서 고아한 지적 문화적 취향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신분계층에 대해 배타적인 지위와 문화적 권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문인간의 모임에서 시가창작은 필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문인집회는 ‘詩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인집회는 문인들의 예

---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32-A00154).

\*\* 세종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술가적 창작의식이 형성된 위진남북조 시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는데, 그들의 집단성은 문학의 내용과 형식, 체재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위진남북조 시기에 문인집회에서 창작된 작품을 중심으로,<sup>1)</sup> 각 문인집회의 성격과 문학 창작환경의 사적 변천, 문인집회의 집단성이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미친 영향 등을 알아볼 것이다. 기존의 문인집회와 관련한 연구가 각각의 문인집회를 개별적으로 연구하거나 동시대의 문인집회를 공시적으로 연구하는데 치중하여 통시적 연구는 부족하다. 또 일부 통시적으로 접근한 연구의 경우, 문인집회의 목적과 구성원 등 집회의 외현적 환경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고,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전개된 연구는 부족하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 1) 본 연구수행을 위해, 《先秦漢魏晉南北朝詩》에 수록된 詩 가운데, 같은 시기에 지어진 같은 제목(同題)의 작품을 동일한 문인집회에서 창작된 작품으로 보고 선별했다. 단, 한 두 명 간에 주고받은 贈答, 酬唱의 작품은 반드시 '집회'를 통해 지어진 작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제의 작품이 3편 이상인 것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했다. 악부 역시 樂府古題를 그대로 사용해 창작하므로, 대부분의 악부가 창작과 관련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시제에 '應詔' '應制' '應令' '待 ~'가 사용되어 문인집회에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지만 동제의 타 작품이 전해지지 않아서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集'이 '시문의 모음집'이라는 의미 외에, 서로 모여 시문을 짓는 모임, 혹은 청담을 위한 모임의 뜻으로도 쓰였으므로(錢志熙 〈早期詩文集形成問題新探〉(《齊魯學刊》2008년1기), 강엄의 〈劉卞射東山集詩〉, 〈無錫縣歷山集詩〉 등처럼 문인집회에서 창작된 작품이지만 다른 同題詩가 전해지지 않아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된 경우도 있다.
- 2) 위진남북조 시기의 문인집회와 그 문학창작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개괄해 보면, 일본의 경우, 《漢魏詩の研究》(鈴木修次 著, 大修館書店, 昭和42)의 제3장 제2項 〈建安詩の題材と賦〉에서 건안문인의 문학창작이 집단적 활동의 결과임을 착안하고, 이때 지어진 시가를 내용에 따라 사교적 내용과 題詠시로 나누어 분석했다. 〈謝瞻·謝靈運의文學與他們的周圍〉는 宋 義熙년간의 戲馬臺集會를 중심으로, 당시 문인들의 교류방식과 문학창작을 연구 분석했다. 또 《中國のアルハニ系譜の詩學》에는 연회시가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신분 구성과 작품 풍격과의 관계, 각 시대별 연회시의 특징 등을 연구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90년대 말부터 문인 群體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위진남북조 시기의 문인집단을 연구한 저서로 《中古文學集團》은 위진남북조 문인집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서이나 각각의 문학창작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中古詩人群體及其詩風演化》는 3-4개의 대표적 시인군체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문인집단의 전체적 변화과정을 알기에는 부족하다. 《中國古代文人集團與文學風貌》는 상고시대부터 청대까지의 문인집단을 개괄했으나, 연구범위가 너무 넓고 문인집단의 성격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문학에 대한 심도는 부족하다. 그 외에 《蘭陵蕭氏與南朝文學》, 《齊梁文壇與四蕭研究》 등은 주로 제량

문인집회가 본격적인 문학집단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sup>3)</sup>

## II. 문인집회의 재구성

중국 문인들은 전통적으로 ‘詩可以群’적 관념을 갖고 있다.<sup>4)</sup> ‘詩可以群’은 시가 한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君臣 간 문인 간 교류에서 사용되어 집단의 결속력과 동질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지녔다는 것이다. 문인집회에서의 ‘賦詩’행위는 그러한 의식의 표현이다. 鍾嶸이 「좋은 모임에서는 시를 지어 가까워지고, 무리를 떠날 때는 시에 의탁하여 슬픔을 표현한다」고<sup>5)</sup> 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기의 문인집회에서는 시가창작이 일반적 행위였음을 설명한다. 위진남북조 시기의 대표적 문인집회와 문학창작을 개괄해 본다.

### 1. 西園集會

중국문학사상 최초의 문인집단은 曹丕를 중심으로 한 建安文人집단이다. 曹丕·

시 蕭氏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참고할 만하다. 학술논문은 주로 개별적 문인집회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상당한 양이 축적되었으나, 통시적으로 위진남북조 전체의 흐름을 고찰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국내의 위진남북조 문인집회 연구 역시 건안문인집단과 제량 문학집단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금곡원집회나 蘭亭集會 등과 관련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보인다. 다만 문인집회 혹은 문학집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나 위진남북조 시기를 통시적으로 관통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 3) 본 연구에서 사용될 유사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문인집회’는 문인이 모임의 주요 구성원으로 소집된 모임으로, 정치적 문학적 목적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일회성 모임이다. ‘문인집단’은 문인집회가 일회성에 가깝다면, 집단은 동일한 활동주체가 지속적인 모임활동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취향이나 문학적 색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모임의 지속성은 일정한 유사성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학집회’는 문학창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문인간의 일회성 모임이고, ‘문학집단’은 문학창작을 주요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임 활동을 전개하는 문인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집단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면 문인집회 혹은 문인집단이고, 문학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면 문학집회 혹은 문학집단이라 규정할 수 있다.

4) 《論語·陽貨》: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5) 鍾嶸 〈詩品序〉: 「嘉會寄詩以親, 離群托詩以怨。」

曹植·王粲·劉楨·阮瑀·應瑒 등이 중심인물이며, 銅雀臺, 西園 등지에서 집회를 가졌다. 조비가 후일 吳質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문인들과 연회를 즐기던 옛날을 회상하는 내용을 통해 당시 집회의 정경을 유추할 수 있다.<sup>6)</sup> 이들의 〈公宴詩〉라는 同題詩는 건안 16년의 문인집회에서<sup>7)</sup> 지어진 작품으로 보여진다.<sup>8)</sup> 왕찬(遂欽立《先秦漢魏晉南北朝詩》360쪽에 수록. 이하 쪽수만 표시), 유정(369쪽), 완우(380쪽), 조식의 〈公宴詩〉(449쪽)가 전해지고, 응창도 〈公宴詩〉(382쪽)와 〈侍五官中郎將建章臺集詩〉(383쪽)가 있다. 조비의 〈芙蓉池作詩〉(400쪽)도 그 당시에 지어진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소위 ‘公讌’이란 신하가 公卿의 집에서 연회를 모시는 것, 즉 공경이 주최하는 연회를 말한다.<sup>9)</sup>

유정의 〈公宴詩〉에, 「달이 돌아 동산을 비추고, 진기한 나무는 질푸르게 우거졌구나. 맑은 시내는 돌 도랑을 지나고, 흐르는 물결이 물고기를 막는구나. 부용이 꽃을 흩뿌려, 연봉이 금 못에 넘쳐나네.(月出照園中, 珍木鬱蒼蒼. 清川過石渠, 流波爲魚防. 芙蓉散其華, 菡萏溢金塘.)」라는 표현은 문인집회의 때와 장소를 표현한 것이다. 이 문인집회는 부용꽃이 절정을 막 넘어선 시절 달빛이 맑게 비치는 밤이며, 서원의 건장대 주변, 나무가 우거진 동산과 물고기가 뛰어노는 도랑이 있는 야외에서 개최되었다. 왕찬의 〈公宴詩〉에는 「산해진미가 그릇마다 가득하고, 맛있는

6) 曹丕〈與吳質書〉: 「…… 每念昔日南皮之游, 誠不可忘. 旣妙思六經, 逍遙百氏, 彈棋間設, 終以博奕, 高談娛心, 哀箏順耳. 馳騫北場, 旅食南館, 浮甘瓜於清泉, 沈朱李於寒水. 曠日旣沒, 繼以朗月, 同乘並載, 以游後園, 輿輪徐動, 賓從無聲, …… 時駕而游, 北遵河曲, 從者鳴笳以啓路, 文學託乘於後車, ……」

7) 건안 16년 조비가 五官中郎에 임명되었고(《三國志》 권1 〈魏書(一)·武帝紀〉: 「天子命公世子(曹)丕爲五官中郎將」), 건안 17년에는 완우가 사망했다.

8) 제목이 같다고 무조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지어졌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시대에는 동제의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작품은 같은 집회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비와 조식의 同題詩 〈代劉勳妻王氏雜詩〉가 그렇고, 서간의 〈于清河見挽船士新婚與妻別〉은 조비의 〈清河作〉이나 〈見挽船士兄弟辭別〉과 동시기 작품으로 보인다. 또 조조, 조비, 조식의 〈登臺賦〉는 조비의 〈登臺賦序〉에 「建安十七年春, 遊西園, 命余兄弟并作」에 의해 역시 동일 집회에서 지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조비, 조식, 왕찬의 〈寡婦賦〉, 건안 18년 조비, 조식, 왕찬, 응양의 〈愁霖賦〉와 〈雨霽賦〉, 건안 20년 조비, 왕찬, 응양, 진림의 〈柳賦〉, 건안 21년 조식, 왕찬, 유정, 진림의 〈大署賦〉 등은 당시 문인집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창작하는 풍조가 성행함을 보여준다.

9) 《文選》卷20 公宴條: 五臣注: 「漢曰, 公讌者, 臣下在公家侍讌也。」

술은 금 술독에 넘쳐나네. 관현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데, 가락이 맑고도 구성지구나. 어울려 앉아 함께 즐기는데, 다만 술잔이 늦게 돈다고 불평하네(嘉肴充圓方, 旨酒盈金罍. 管弦發徽音, 曲度清且悲. 合坐同所樂, 但慙杯行遲.)」라고 산해진미와 미주가 넘치고 맑은 관현악이 울려퍼지는 즐거운 공연의 분위기를 묘사했다. 또 「시인들의 언어가 언제나 들리고(常聞詩人語)」(왕찬 〈公宴詩〉)나 「시를 지어 보내 안부를 묻고(贈詩見存慰)」(응창〈侍五官中郎將建章台集詩〉), 「붓을 잡고 문장을 지어내고(援筆興文章)」(응창 〈公宴詩〉) 등의 표현은 집회에서 문학창작이 중요한 활동이었음을 설명한다. 이어 「원컨대 우리 어지신 주인, 하늘과 나란히 복록을 누리시길. 능히 주공의 공적에 버금가니, 대대손손 따를 자 없으리라(願我賢主人, 與天享巍巍. 克符周公業, 奕世不可追.)」(왕찬 〈公宴詩〉)라고 조비의 공덕이 영원하기를 축원했다. 조식도 「공자는 손님을 공경하고 좋아하여, 연회가 끝날 때까지 지칠 줄 모르네(公子敬愛客, 終宴不知疲)」(〈公宴詩〉), 응창도 「공자는 손님을 공경하고 좋아하여, 즐겁게 마시고 지칠 줄 모르네(公子敬愛客, 樂飲不知疲)」(〈侍五官中郎將建章臺集詩〉), 「높고 높은 주인의 덕, 아름답게 사방에 고루 퍼지네(巍巍主人德, 佳會被四方.)」(〈公宴詩〉)라 했다. 대체로 연회 주최자인 조비에 대한 칭송인데, 조비를 ‘賢主人’, ‘主人’, ‘賢主’, ‘公子’ 등으로 표현하며, 그의 높은 성덕이 영원히 사방에 펼쳐지기를 높이 축원한다. 이는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간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닌 주 - 객의 종속적 관계였고, 문학창작도 진실한 감정교류 보다는 의식적 행위의 하나로서 창작되었음을 설명한다.

당시 문인집단을 이끌었던 조비는 문인을 아끼고 ‘公宴’을 자주 개최하여 ‘賦詩’를 즐겼지만, 「문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일」<sup>10)</sup>라고 문학을 정치적 각도에서 보아왔으므로, 순수한 의미의 패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문인들 역시 정치권력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여 〈公宴詩〉는 조비라는 한 명의 문학적 향유자를 의식한 창작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연회 환경에 대한 객관적 묘사와 함께 후일 應詔詩나 봉화시에서 보이는 가공송덕의 내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 문인 집회는 순수 문학집회가 아닌, 일차적으로 조비라는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식인집단의 집회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시대적 목적이 개입된 모임이므로, 그들의 문학작품에 투영된 건안풍골은 집단적 교류에서 형성된 정치 의식과 시대적 우

10) 《典論·論文》: 「蓋文章經國之大業。」

환의식의 공통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유희도 건안문인들이 「풍월을 사랑하고, 연못과 동산에서 노닐면서,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고, 酒宴의 기분을 서술하며, 慷慨는 意氣에 맡겨지고, 磊落한 심경은 재능을 전개시켰다」<sup>11)</sup>라고, 문인들의 집회와 문학풍격이 관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 서원집회는 이후 문인집회 문화나 집회에서의 문학창작 활동이 보편화되는 데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sup>12)</sup>

서원집회 이후 문인집회가 점차 늘어났지만, 문학창작이 때로는 지나치게 강권적 경향을 띠기도 했다. 魏 少帝 때 和迪와 陳騫 등은 제때에 시를 짓지 못해 면직당했고, 高貴鄉公이 華林園에서 베푼 연회에서는 시를 짓지 못한 24명이 벌주를 마시기도 했다.<sup>13)</sup> 이와 같은 강권적 경향으로 자유로운 문학창작은 불가능했지만, 역시 문인집회에서의 창작이 보편화되는 데에는 일정한 기여를 했다.

## 2. 上巳契會와 平吳 기념 華林園禊會

3월 3일 上巳日是 전통적으로 물가에서 몸을 씻고 한 해의 액을 떨어버리는 주술적 의미를 지닌 '修禊日'이었는데, 위진 이후에는 曲水에 술잔을 띄워 마시고, 수렵이나 낚시를 하는 등 오락적 행위가 수반된 '禊宴'으로 발전한다.<sup>14)</sup> 이 '禊宴'에서는 시문 음영이 중요한 활동이었는데, 成公綏, 張協의 〈洛禊賦〉, 夏侯湛, 褚爽의 〈禊賦〉, 阮瞻 〈上巳會賦〉와 張華의 〈太康六年三月三日後園會詩〉 등 다수의 春禊詩가 그 증거이다.

현재 上巳日 契會에 지어진 同題詩가 상당수 전해진다. 晉代 陸機의 〈三月三日詩〉(692쪽), 閻丘沖의 〈三月三日應詔詩〉 2수(749쪽), 王讚의 〈三月三日詩〉(760쪽), 潘泥의 〈上巳日帝會天淵池詩〉(765쪽), 〈皇太子上巳日詩〉(765쪽), 〈巳日詩〉(765쪽), 〈三月三日洛水作詩〉(767쪽) 등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반드시 같은 해

11) 《文心雕龍·明詩》: 「并憐風月, 狎池苑, 述恩榮, 敝酣宴, 慷慨以任氣, 磊落以使才。」  
 12) 《文心雕龍·才略》: 「宋來美談, 亦以建安爲口實. 何也. 豈非崇文學之盛世, 招才之嘉會哉。」  
 13) 《三國志》 권4 〈魏書·三少帝紀〉: 「(甘露2년) 帝行辟雍, 會命群臣賦詩. 侍中和迪·尚書陳騫等作詩稽留, 有司奏免官。」 《高貴鄉公集》: 「(高貴鄉公)幸華林, 嗣群臣酒, 酒酣, 上授筆賦詩, 群臣以次作. 二十四人不能著詩, 授罰酒. 黃門侍郎鍾會爲上」  
 14) 《宋書》 권15 〈禮志(二)〉: 「魏明帝天淵池南, 設流杯石溝, 燕群臣。」 張華 〈上巳篇〉: 「飛軒遊九野, 置酒會衆賓。」

동일 집회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여구충의 〈三月三日應詔詩〉와 반니의 〈上巳日帝會天淵池詩〉는 황제가 주최한 상사계회이고, 반니의 〈皇太子上巳日〉는 황태자가 주최한 상사계회이다. 하지만 ‘修禊日’ 집회는 집회의 성격이나, 개최 시기, 개최 환경 등이 매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상사일 계회에서 지어진 문학작품을 묶어서 고찰해본다.

閻丘冲의 〈三月三日應詔詩〉 2수는 화창한 3월 따뜻한 기운이 돌아 초목에 생기가 돌고(餘萌達壤, 嘉木敷榮.),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더러움을 씻어낼 때, 임금의 수레가 앞서고 신하들이 뒤따르는 나들이 장면과(光光華輦, 誥誥從臣.), 계회 행사를 묘사했다(臨川挹盥, 濯故清新). 이어 시선을 옮겨가며 봄날 경치를 다양하게 묘사했다. 2장에서는 위대한 임금의 은혜가 온 나라에 펼쳐지고, 오늘같은 즐거움이 영원할 것과 참석한 문인들의 안녕을 기원했다(今我哲后, 古聖齊芳. 惠此中國, 以綏四方. 元首既明, 股肱惟良. 樂酒今日, 君子惟康). 대체로 진대 상사일 기념 應詔詩는 봄 경치와 수계행사에 대한 묘사 및 황제에 대한 가공송덕과 송축 등의 내용이 화려하고 전아한 수사로 표현되며, 서진시기의 正格인 4언이 대부분이다.

또 진 무제는 뜻을 평정한 후, 태시 4년(268년) 2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화림원에서 군신들과 연회를 즐기며 賦詩했다.<sup>15)</sup> 이때를 전후하여 지어진 작품이 程咸의 〈平吳後三月三日從華林園作詩〉(552쪽), 응정의 〈晉武帝華林園集詩〉 9장(580쪽), 王濟의 〈平吳後三月三日華林園詩〉(597쪽) 등이 있다.<sup>16)</sup> 화림원은 원래 동한에 건설된 芳林園인데, 魏 齊王 曹芳이 華林園으로 개명했다. 정함 〈平吳後三月三日從華林園作詩〉에 「황제가 용선에 오르자, 열두 명이 장막에서 모시네(皇帝升龍舟, 侍幄十二人)」라는 표현이 있어 열두 명 정도의 문인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이름은 알 수 없다.

15) 《文選》卷20 公宴條 〈晉武帝華林園集詩〉 注引: 「泰始四年二月, 上幸芳林園, 與群臣宴, 賦詩觀志, 孫盛 〈晉陽秋〉曰, 散騎常侍應貞詩最美。」

16) 遂欽立은 《先秦漢魏晉南北朝詩》에서 荀勗의 〈從武帝華林園宴詩〉 2장(592쪽), 〈三月三日從華林園詩〉(592쪽) 두 작품도 「同時之作」으로 보았는데, 이 작품이 태시 4년 2월의 작품이라는 뚜렷한 기록은 없으나, 순욱의 작품 역시 무제가 화림원에서 베푼 연회에서 창작한 것이며, 화림원에서의 또 다른 연회에 대한 기록이나 작품이 없다는 점에서, 태시 4년 2월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왕제의 〈平吳後三月三日華林園詩〉를 보면, 오나라를 평정한 무제의 용맹함에 대한 찬양(我皇神武, 泛舟万里. 迅雷電邁, 弗及掩耳)이 있고, 화창한 봄날의 계획인 만큼 자연에 대한 관심을 현학적으로 표현했고(仁以山悅, 水爲智歡. 清池流爵, 秘樂通玄), 만물과 인정의 변화의 원리를 서술하고(物以時序, 情以化宣) 계획 참석자들이 영원한 복록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嘉賓在茲, 千祿永年). 수사가 화려하게 정련되어典雅하고 頌美한 풍격의 4언 宮庭詩라 할 수 있다.

이후 궁정을 중심으로 한 上巳契會는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현재 전해지는 應制春禊詩도 적지 않다. 上巳日의 특성상 나라의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있으므로 상사일 집회는 정중하게 거행되고, 시가 역시 군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정중하게 시를 지어 바치는 '應制詩'나 '應令詩'가 다수를 차지한다. 대체로 장중하고 엄숙하게 상사계획의 의미를 살려내는데, 표면적으로는 황제가 베푸는 연회가 아닌 조정의 공식적 행사이므로, 직접적인 가공송덕보다는 포괄적으로 나라의 안녕을 염원하는 내용이 표현된다. 서원집회에서 〈公宴詩〉나 후대의 奉和應詔詩가 직접적으로 조비 혹은 황제라는 1인의 문학 향수자를 위해 가공송덕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종교성 무속성을 지닌 상사계획에 오락적 행위가 수반된 '禊宴'과 시부 창작이 거행되는 것은 '詩可以群'적 전통 관념과 당시 풍류관념의 확산과도 관련있어 보인다.

### 3. 金谷集會

金谷集會는 서진 元康 6년(296년) 石崇이 자신은 使持節 겸 征虜將軍으로 전 보되고 大將軍祭酒 王詡는 還京하게 되자, 30 명의 문인들을 낙양 주변 金谷園 별장으로 불러 개최했던 모임이다. 石崇은 〈金谷詩序〉에,

나는 어진 인사들과 함께 전송하러 금곡간으로 가, 주야로 연회를 열어, 몇 번이나 좌석을 옮겼다. 높은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거나, 물가에 나란히 앉거나 하였다. …… 그리고 각각 시를 지어 마음 속의 생각을 서술하였다. 시를 짓지 못한 자는 세 말의 술을 벌로 마시게 했다.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에 감개하고, 언제 시들어 죽을지도 알 수 없음에 마음 아파하여, 지금의 관직, 이름, 연령을 차례로 기록하고, 또 시를 적어 뒤에 붙였다(余與衆賢共送澗中. 晝夜游宴, 屢遷其坐.



或登高臨下，或列坐水濱。……遂各賦詩，以敘中懷。或不能者，罰酒三斗。感生命之不永，懼雕落之無期，故具列詩人官號·姓名·年紀，又寫詩著後。

금곡집회의 1차 목적은 송별연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산수를 노닐고 음주행락 등 풍류를 즐겼고, 풍류의 일환으로 시를 지었다. 따라서 순수한 문학집회 혹은 '詩會'라고는 보기 어렵고 일종의 '風流會'에 가깝다. 그들이 시집을 남기게 된 동기는 언제 죽을 지도 알 수 없는 짧은 인생을 통감하고, 그런 불안과 허무함을 문학작품을 남김으로서 위로하고자 《金谷集》을 엮은 것이다. 문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진보했다. 이 《金谷集》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陸機·潘岳·左思·劉琨·歐陽建·摯虞 등 '二十四友'<sup>17)</sup>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전해지는 작품은 杜育의 〈金谷詩〉(757쪽), 潘岳의 〈金谷集作詩〉(632쪽)와 〈金谷回詩〉(632쪽) 이다.<sup>18)</sup>

두육의 〈금곡시〉에 「이윽고 서글퍼져, 이별이 느껴지는구나(既而慨爾，感此離析)」라고 이 집회가 송별연이었음을 나타냈다. 반약은 〈金谷集作詩〉에서 「왕생(王詡)은 나라의 중추를 보좌하고, 석자(石崇)는 동해와 기수에 주둔하네(王生和鼎實。石子鎮海沂)」라고 연회의 중심인물을 언급하며, 「어찌 이별의 아쉬움을 말로 다하리, 손을 잡고 근교를 노닌다네(何以敘離思。攜手遊郊畿)」라고 집회가 송별을 위해 만났음을 표현했다. 이어 금곡원의 계곡과 언덕, 연못과 샘, 앞 뒤 정원의 꽃과 새 등 다양한 경치를 상세하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자리를 옮기며 주연을 즐기는데 술잔 도는 것이 늦다고 탄식한다는 표현으로 연회의 즐거움을 표현했다(飲至臨華沼。遷坐登隆坻。玄醴染朱顏。便攄杯行遲)。마지막에는 연회를 베푼 주인에 대한 동질의식을 「金石같은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노니, 백발되어 돌아갈 때는 함께 가세나(投分寄石友。白首同所歸)」라고 표현했다. 집회의 목적과 시공간적 환경 등의 묘사에 대부분의 편폭이 할애되었는데, 금곡원의 경치에 대한 묘사가 섬세하다.

17) 《晉書》 권40 〈賈謐傳〉: 「開閣延賓，海內輻湊，貴游豪戚及浮競之徒，莫不盡禮事之。或著文章稱美謐，以方賈誼。……號曰二十四友，其餘不得預焉。」

18) 曹攄의 〈贈石崇詩〉 2수에 「涓涓谷中泉，鬱鬱巖下林。……人言重別離，斯情效于今」라는 표현을 보면, 조터라는 인물 역시 금곡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金樓子·雜記(下)》의 「金谷聚，前絳邑令邵榮陽·中牟潘豹·沛國劉濂不能著詩，并罰酒三斗。」에 의하면, 邵榮陽, 潘豹, 劉濂 등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서정은 대체로 배제되었다. 집회에서 집체적이며 공개적인 창작이 갖는 한계이다. 인생의 허무감을 문학으로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어 문학관념이 진보되었음은 볼 수 있으나, 역시 순수한 문학집회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별연이 주요 목적인 '풍류회'였다.

#### 4. 蘭亭集會

蘭亭集會 역시 上巳日 문인집회이다. 東晉 穆帝 永和 9년(353년) 3월 3일, 王羲之가 중심이 되어 당시 문단의 영수인 謝安 孫綽 등 41명의 문인들과 會稽의 蘭亭에 모여, '修禊'와 문학창작을 했던 모임이다. 역시 '修禊'보다는 '禊宴'적 의미가 강하다. 이 모임에서 40여 수의 〈蘭亭詩〉가 지어졌는데, 王羲之(895쪽)·孫綽(901쪽)·謝安(906쪽)·謝萬(906쪽)·孫統(907쪽)·袁嶠之(910쪽)·王凝之(911쪽)·王肅之(913쪽)·王徽之(914쪽)·王彬之(914쪽)·徐豐之(916쪽) 등은 각각 4언시와 5언시를 한 수 씩 남겼고, 孫嗣(908쪽)·郗曇(908쪽)·庾蘊(909쪽)·曹茂之(909쪽)·桓偉(910쪽)·王玄之(911쪽)·王渙之(914쪽)·王蘊之(915쪽)·魏滂(915쪽)·虞說(916쪽)·謝繹(916쪽)·曹華(917쪽) 등은 5언시만을, 그 외에 庾友(908쪽)·華茂(910쪽)·王豐之(915쪽) 등은 4언시를 한 수씩 남겼다. 謝瑰·卞迪·丘髦·王獻之·羊模·孔熾·劉密·虞谷·勞夷·后綿·華耆·謝勝·呂系·呂本·曹禮 등은 시를 짓지 못해 별주를 마셨다.<sup>19)</sup>

왕희지는 石崇의 〈金谷詩序〉를 모방하여 〈蘭亭序〉를 지어 집회의 때와 장소, 목적, 참석인사의 상황 등을 개괄했다. 그리고 찬란한 태양 아래 높은 산 맑은 물을 끼고, 曲水에 잔을 띄워 마시며 읊조리며 諸賢과 함께 산수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서술했다. 「이 땅에 숭산준령, 울창한 숲과 수죽이 있고, …… 술 한 잔에 시 한 수, 또한 그윽한 기분을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 우리러 우주의 크을 보고, 굽어 만물의 무성함을 살폈다. 눈으로 이리저리 보고 마음을 여니 눈과 귀의 즐거움을 다 하기에 충분했다. ……」.<sup>20)</sup> 그 情懷가 우주적이며, 감정기조는 낙관적이다. 난정

19) 난정집회에 참여한 인물, 작품의 내용과 형식 등 난정집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쥘저 〈東晉 蘭亭詩 연구〉(《중국문학연구》 제23집, 한국중문학회, 2001.12) 참고.

20) 「永和九年，歲在癸丑，暮春之初，會于會稽山陰之蘭亭，修禊事也。群賢筆至，少長咸

집회의 문인들은 春禊日에 산수자연을 즐기고 청담 및 문학창작을 통해 현실과 심신의 해방을 구하고자 했다. 왕희지는 〈蘭亭詩〉에서 「비록 악기가 없어도, 오묘한 샘에서 맑은 소리 나고, 피리와 노래가 없어도, 긴 읊조림에 여운이 남는다. 하루아침에 즐거움을 얻었으니, 이것에 기대어 천년을 지내리라(雖無絲與竹, 玄泉有清聲. 雖無嘯與歌, 詠言有餘馨, 取樂在一朝, 寄之齊千齡.)」고 산수 자연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했다. 사안은 〈蘭亭詩〉에서 「더불어 좋은 시절을 즐기고, 구속 없이 옷을 걷어붙인 채 뜻을 같이 한다. 얽은 구름 밝은 풍경 위에 드리웠고, 미풍은 가벼운 배를 몰아간다. 맛 좋은 탁주에 취하니 성세를 만난 듯하여, 갑자기 羲唐 세상을 유람하는 듯하다(相與欣佳節, 率爾同褰裳. 薄雲羅陽景, 微風翼輕航. 醇醪陶丹府, 兀若遊羲唐.)」라고 교류와 유람의 즐거움, 酒宴의 흥취를 표현했다. 이어 「만물이 하나의 이치로 섞여 있으니, 어찌 또 장수와 단명을 느끼게 되랴(萬殊混一理, 安復覺彭殤.)」라고 생명의 유한함에 대한 초월로 결론짓는다.

금곡집회를 연 석승은 정치적 현세적 욕망이 컸던 인물이고, 집회 성원간의 관계는 주로 관료 관계였다. 금곡집회 역시 시대적 풍조를 반영한 '풍류회'였다. 난정집회는 정치적 목적의 관료모임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건안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같은 주종관계도 없다. 난정집회 참석자들은 산수 간에서의 은일이나 풍류 등 정신적 만족을 추구했으며 문학창작을 중시하여, 연회를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문학창작이 아니라 문학창작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즐겼다. 문학창작 활동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의 풍류회 성격의 문인집회가 詩畵적 성격의 문인집회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난정시〉에서는 건안의 〈公宴詩〉에서 보이는 主客의 대비적 구조나 성대한 연회에 대한 찬미와 같은 상투적 표현 역시 사라졌다.

난정집회는 동진 문인집회의 특징을 보여준다. 정치적 모임이 아니라, 정치성을 벗어난 수평적 관계다. 특정한 관심이나 취향을 중심으로 한 반복적 일상적 집회이며, 그 모임의 공간은 궁정에 제한되지 않고 산수나 장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주로 청담, 산수유람 및 감상, 음주, 부시 등을 통해 「그윽한 기분을 나타내고자(暢敘幽情)」했다. 여기에는 당시 지식인들의 주체적 의식의 강화와 風流 사조, 淸談의 유

集. 此地有崇山峻嶺, 茂林修竹, 又有清流激湍, 映帶左右, 引以爲流觴曲水, 列坐其次. 雖無絲竹管絃之盛, 一觴一詠, 亦足以暢敘幽情. 是日也, 天朗氣清, 惠風和暢, 仰觀宇宙之大, 俯察品類之盛, 所以游目騁懷, 足以極視聽之娛, 信可樂也。」

행 등이 바탕이 되었으며, 사족의 가족집회나 사족들이 중심이 된 문인집회가 그 중심에 있다.

### 5. 謝氏家族集會

남북조시대에 사족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인재가 가장 밀집된, 문화적 계승자이자 창조자 계층이다. 「王·袁씨는 선조를 이어 용같이 빼어난 문장을 짓고, 顔·謝씨는 후손들이 거둬나와 봉황같은 문채를 지어 낸다」는<sup>21)</sup> 것 역시 王·袁·顔·謝씨와 같은 사족집단에서 文才가 대대로 나왔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사족 간의 빈번한 모임 역시 문인집회 요건을 갖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집단적으로 창작한 문학작품이 전해지는 집회를 중심으로 고찰하므로, 주로 謝安, 謝道韞 등 사씨 집안 자체들이 지은 〈詠雪聯句〉(913쪽)를 중심으로 논술한다.

사안은 자녀나 조카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던 인물이다.<sup>22)</sup> 謝安이 자체들과 문장의 의의에 대해 토론하던 중, 눈이 크게 내리자 公은 혼연히 「백설이 펄펄 날리는 게 무엇과 같은가?(白雪紛紛何所似)」라 했고, 謝朗은 이를 받아 「소금을 공중에 뿌린다고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요?(撒鹽空中差可擬)」라고 구를 이었고, 謝道韞은 「버들솜이 바람에 흩날린다만 못합니다(未若柳絮因風起)」라고 聯句를 지었다.<sup>23)</sup> 가족 간의 문학적 모임에서 詠雪을 주제로 자유로운 창작을 벌인 것이다. 비정치적이고 수평적인 집회이므로, 자연스럽게 심미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표현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간에 상호 切磋琢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씨 집안의 대표적 문인집회로 謝混, 謝靈運, 謝瞻, 謝晦, 謝曜, 謝弘微 등이 文義賞會했던 ‘烏衣之游’가 있다. 가족 내 지도적 위치에 있던 謝混을 중심으로 비정치적이며 수평적인 모임을 자주 개최했다. 당시 문학은 사족들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으므로, 시는 풍류 행위의 餘技 정도가 아닌 절대적으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씨 가족집단의 비정치적, 서정적 경향은 산수시 창작에서 그 가족문인집단의 계통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21) 《文心雕龍·時序》: 「王·袁聯宗以龍章, 顔·謝重葉以鳳采。」

22) 《晉書》 권79 〈謝安傳〉: 「又于土山營墅, 樓館林竹甚盛, 每携中外子侄往來游集。」

23) 《世說新語·言語》

난정집회와 사씨가족집회처럼 동진의 문인집회는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수평적 관계였으며, 집회 참가자의 주체의식이 중시된 관계였다. 특히 문학창작이 단순히 집회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기록하던 위치에서 벗어나 작가의 의식과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6. 廬山白蓮社集會

동진에 廬山の 東林寺에는 慧遠을 중심으로 '淨土之業'의 수행을 목표로 하는 '白蓮社'가 결성된다. 慧永, 慧持, 劉程之(劉遺民), 張野, 周續之, 張詮, 宗炳, 雷次宗 등 소위 '十八賢'이라는 인물을 비롯한 123 명으로 구성되었다.<sup>24)</sup> 이들은 수행을 위한 집회 외에도 문학적 교류를 전개했다. 慧遠의 〈游廬山〉(1085쪽, 一作〈廬山東林雜詩〉)에 대해 劉程之(937쪽), 張野(938쪽), 王喬之(937쪽) 등이 각각 지은 〈奉和慧遠游廬山〉시가 그것인데, 이 작품들은 중국 최초의 창화시이다.<sup>25)</sup>

慧遠의 창시 〈遊廬山〉은 廬山の 신령스럽고 그윽한 경치와 그 속에서 궁극의 진리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을 표현했다. 「마음을 움직여 入道의 문을 두드리면, 궁극의 이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닐 터. …… 현묘한 이치와 흥취가 절로 같아지려니, 깨달음은 벗이 주는 유익함을 초월한다네(流心叩玄扃, 感至理弗隔. …… 妙同趣自均, 一悟超三益)」이다. 王喬之는 이에 대한 봉화시 〈奉和慧遠遊廬山詩〉에서 廬山の 웅대하고 신령스러운 경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감하듯이 표현했다. 「…… 긴 강은 우거진 나무 사이에서 빛나고, 거센 빗줄기는 가을 소나무 숲에 내리친다. 아슬아슬하게 걸어가 깊은 골짜기 바라보니, 신령스런 계곡물에 만 겹 산이 비친다. 바람과 샘물은 먼 곳의 기운을 조절하고, 아득한 소리에는 새들의 합창이 섞여있다. …… 세상사란 천상계에 속한 것이니, 언제나 맑은 바람 소리 들으리라(…… 長河濯茂楚. 險雨列秋松. 危步臨絕冥. 靈壑映萬重, 風泉調遠氣, 遙響多啾噉. …… 事屬天人界, 常聞清吹空)」 창시가 시인의 求道에 대한 열정과 궁극의 이치에 대

24) 晉 佚名, 〈蓮社高賢傳〉: 「慧永·慧持 …… 名儒劉程之(劉遺民)·張野·周續之·張詮·宗炳·雷次宗等結社念佛, 世號十八賢. 復率衆至百二十三人, 同修淨土之業。」

25) 창화시의 발생과 발전, 문인들의 교류와 문학창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줄재 〈중국 초기 창화시 연구〉(《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12) 참고.

한 간절함 등 시인의 내면 표현에 치중했는데, 화시는 창시의 내용보다는 여산의 풍경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이 화시가 창시에 적극적으로 '和意'하기보다는 시를 지어 '應酬'하는 행위방식에 충실했음을 설명한다. 劉程之의 화시 〈奉和慧遠遊廬山詩〉에서는 구도에 대한 열망과 그 실현의 아득함을 표현했다(孰至消煙外, 曉然與物分. 冥冥玄穀裏, 響集自可聞).<sup>26)</sup>

창화시는 상대방의 특정한 작품(창시)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화답하는(화시) 것이다. 主 - 客 관계가 두드러진 이전의 집회에서는 주최자가 詩題를 제시하면 수동적으로 同題詩 혹은 應詔詩 등을 창작했다면, 백련사 집회에서는 비교적 동등한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특정한 작품에 맞추어 화시를 창작한 것이다. 또 문인집회 환경을 묘사하거나 개인적 의식이나 감정을 표현하던 차원에서 나아가, 문인집회에서 문인 상호간에 시를 주고받으며 교분을 쌓음으로써, 시가 창작이 교류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자 목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문인집회에서 '詩可以群'적 효용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되어 시가 창작이 능동적 관계 맺기에 사용된 것이며, 문인집회에서 시가창작이 더욱 중시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 7. 戲馬臺 送別集會

송 義熙14년(418년) 9월 9일 孔靖(字 季恭)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을 원하자 송공(후일의 송 무제, 劉裕)이 彭城의 戲馬臺에서 전별연을 베풀고 백관들에게 시를 지어 그를 찬미하도록 했다.<sup>27)</sup> 이때 劉裕와 당사자 孔靖 외에 謝瞻, 謝靈運, 謝晦, 劉義恭, 王曇首<sup>28)</sup> 등이 참석했다. 이때 지어진 작품으로는 사담(1131쪽), 사령운(1157쪽)이 각각 지은 〈九日從宋公戲馬臺集送孔令詩〉와 劉義恭의 〈彭城戲

26) 이들의 창화시뿐만 아니라 陶淵明의 〈五月旦作, 和戴主簿〉, 〈歲暮, 和張常侍〉, 〈和劉柴桑〉, 〈和郭主簿〉 2수, 〈和胡西曹, 示顧賊曹〉 등도 창시가 전해지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화시로 보인다. 陶淵明은 周續之, 劉遺民과 소위 '尋陽三隱' 이라고 불리우기도 했고, 張野와도 절친한 관계였으므로, 慧遠 등 白蓮社 인물들과 교류가 있었고(晉 佚名, 〈蓮社高賢傳〉: 「時遠法師與諸賢結蓮社, 以書招淵明, 淵明曰: 「若許飲則往」. 許之, 遂造焉. 忽攢眉而去.」) 창화 형식의 시도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27) 《宋書》 권54 〈孔季恭傳〉: 「臺初建, 令書以爲尙書令, 加散騎常侍, 又讓不受, 乃拜侍中·特進·左光祿大夫. 辭事東歸, 高祖餞之戲馬臺, 百僚咸賦詩以述其美。」

28) 《宋書》 권63 〈王曇首傳〉: 「行至彭城, 高祖大會戲馬臺, 予坐者皆賦詩。」

馬臺集詩)(1248쪽), 謝晦(彭城會詩)(1140쪽)가 있다.

사령운의 〈九日從宋公戲馬臺集送孔令詩〉는 「중양 가절에 성스러운 마음 베푸시니, 구름 같은 깃발 늦가을에 높이 날린다. 피리소리 울리며 장려한 행궁을 나서고, 좋은 술을 어진 선비(공정)에게 내리네. …… 정치 잘 보좌하여 천하가 태평하고, 德化가 사방에 퍼져 만민이 즐겁구나. 공정은 장차 바닷가로 돌아가려고, 관복 벗고 조정의 군신들에게 이별을 알리네(良辰感聖心, 雲旗興暮節. 鳴葭戾朱宮, 蘭扈獻時哲 …… 在宥天下理, 吹萬群方悅. 歸客遂海嶠, 脫冠謝朝列.)」라 했다. 송공 유유의 은혜로 성대한 전별연이 있음을 가송하고, 태평성세를 이룬 정치를 찬양하며, 공정의 귀향에 대한 송별의 정을 노래했다. 작자의 개인적 감회는 철저히 배제되고 마치 송별연의 목적과 환경을 묘사한 기록시인 듯하다. 문인집회의 일차적 목적이 문학창작이 아닌 송별연이며, 문학창작은 모임의 하나의 행위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사담의 同題詩도 송별연의 분위기와 송별연이 끝나고 공정을 떠나보낼 때의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 逝矣將歸客, 養素克有終. 臨流怨莫從, 歡心嘆飛蓬」). 謝晦는 송공의 인정을 받아 송공과 함께 關, 洛 지역을 정벌하고 돌아왔는데, 이 자리에서도 송공을 대신하여 「먼저 임치의 더러움을 소탕하고, 황하 낙수의 먼지를 깨끗이 없애리라. 화양에서는 좋은 천리마를 기르고, 도림에서는 감추어진 전차를 없게하리라(先蕩臨淄穢, 却清河洛塵. 華陽有逸驥, 桃林無伏輪)」고 했다.<sup>29)</sup> 첫 두 구는 북벌을 향한 야심을, 후 두 구는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로운 천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표현했다. 謝晦은 당시 사씨 일가 가운데 정치적 야심이 비교적 컸던 인물이다. 그는 비록 송공을 대신하여 지은 시여서 입장이 전혀 다르기는 했지만, 謝瞻과 謝靈運이 주로 송별의 감회를 읊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희마대 송별집회는 당시 황제에 버금가는 세력을 갖고 있던 유유가 개최한 집회이다. 따라서 송별의 주인공은 공정이지만, 집회 참석자들은 유유를 중심으로 주-객관계가 형성되어, 송별로 인한 개인적 감정보다는 유유의 국가경영과 관련한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치중했다. 上巳日이나 釋奠祭처럼 조정의 공식적인 의례가 아니므로, 4언시가 아닌 오언시로 창작했다.

29) 《南史》卷19〈謝晦傳〉: 「從征關·洛, 內外要任悉委之. 帝于彭城大會, 命紙筆賦詩, 晦恐帝有失, 起諫帝, 卽代作。」 이 시에 대해 蕭繹 《金樓子·興王篇》과 《태평어람》 권591에 인용된 《宋書》에서는 劉裕 작이라고 기록했다.

## 8. 文惠太子 釋奠祭會

齊 永明 3년(485년) 정월, 조정은 국학을 설립하고 생도 이백 명을 모집했다. 시월, 국학의 학생들이 모두 모이자, 문혜태자는 송정전에서 효경을 강론하고, 선대의 성인과 스승에게 석전제를 지냈다.<sup>30)</sup> 석전제는 황태자가 국학에서 공자 등 선대의 성인과 스승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이다.<sup>31)</sup>

석전제는 국가적 행사에 해당하므로 많은 신하들이 참여한다. 이 영명 3년의 석전제에서 蕭子良(1382쪽), 沈約(1628쪽), 王儉(1378쪽) 등이 각각 〈侍皇太子釋奠宴詩〉라는 시제로, 王思遠(1460쪽)과 袁浮丘(1463쪽)가 〈皇太子釋奠詩〉라는 시제로, 阮彥(1461쪽)과 王僧令(1462쪽)이 〈皇太子釋奠會詩〉, 任昉이 〈爲王嫡子侍皇太子釋奠宴〉(1595쪽) 등의 작품을 지었다. 심약의 〈爲南郡王侍皇太子釋奠宴詩〉 2수(1629쪽) 역시 이때의 작품으로 보인다. 南郡王은 文惠太子 蕭長懋의 장자이다. 황위 계승자가 개최한 집회에 참여하게 된 문인들은 자신의 문학적 가치관이나 풍격과 상관없이, 석전제의 성격과 황태자의 기호에 맞추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자 열중한다. 왕검은 「몸은 학문으로 다스리고, 세상은 교화로 안정시킨다(身由業澡, 世以教安)」라고 학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석전제와 국학을 표현했다. 왕사원의 「풍속은 선비를 표본으로 따르고, 교화는 학문으로 널리 이루어지네(俗資儒從, 化以學昌)」나 完언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하여 주나라가 융성했고, 법도가 무너져 진이 멸망했네(教藹隆周, 軌滅荒秦)」(〈皇太子釋奠會詩〉)라는 표현은 백성의 교화와 나라의 융성이 배움에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석전제의 의미를 높이 살렸다. 太子家令 관직으로 석전제에 참가했던 심약은 〈侍皇太子釋奠宴詩〉에서 「배움을 받드는 것은 마땅한 것. 도는 역시 아득하다. 우주의 이치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황제의 어원에 인제가 가득 모였네(尊學尚矣, 道亦遐哉. 啓圖觀秘, 辟苑興才)」라고 석전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엄숙하게 묘사해 냈다(隆典必修, 闕祀鹹薦. 回鸞獻爵, 捫金委奠. 肆士辨儀, 胥人掌縣. 仿佛神蹤,

30) 《南齊書》 권21 〈文惠太子傳〉: 「永明三年, 於崇正殿講《孝經》, 少傅王儉以摘句令太子仆周顥撰爲義疏。」

31) 《禮記·文王世子》: 「凡學, 春官釋奠于先師, 秋冬亦如之. 凡始立學者, 必釋奠于先聖·先師, 及行事必以幣。」



徘徊靈眷)」。상사일 계회 기념시와 마찬가지로, 석전제 기념시 역시 의례적 악장에 많이 사용되었던 4언시로 지어졌고, 행사의 의미와 분위기 및 그 발전적 의미를 고양하는데 집중하였으며, 감정적 요소는 배제되었다. 내용은 장엄하고 수사는 화려하다. ‘待皇太子~’인 관계로 應令詩의 풍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9. 鼓吹曲 創作集會

齊 永明 8년(490년) 沈約과 謝朓, 王融, 劉繪 등이 모여 〈沈右率과 諸公들이 ‘鼓吹曲’名으로 시를 지어 완성되는 대로 순서를 정하며(同沈右率諸公賦鼓吹曲名先成爲次)〉를 지었다. 경릉왕이 주최하는 모임이 아니라, 문학적 유대가 있는 문인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집회가 정치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보여준다. 沈約이 〈芳樹〉(1620쪽), 謝朓가 〈臨高台〉(1418쪽), 王融이 〈巫山高〉(1388쪽), 劉繪가 〈有所思〉(1468쪽), 范雲이 〈當對酒〉(1543쪽) 등을 창작했는데, ‘같은 제목으로 다시 지어(同前再賦)’ 2차로 沈約이 〈臨高台〉(1620쪽), 謝朓는 〈芳樹〉(1417쪽), 王融은 〈有所思〉(1389쪽)와 〈芳樹〉(1389쪽), 劉繪는 〈巫山高〉(1468쪽), 范雲 역시 〈巫山高〉(1543쪽)를 지었다. ‘같은 제목으로 다시 지었다(同前再賦)’는 것은 고취곡명 창작이 집회의 주요 활동임을 설명한다. 또 2차 창작은 같은 제목의 1차 창작에 대한 唱和였는데,<sup>32)</sup> 이는 집회에서의 문학적 학습과 계발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시를 ‘先成爲次’라 한 것을 보아 약간의 유희와 경쟁을 개입시켜 文才를 겨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劉繪와 王融의 〈有所思〉는 여인의 그리움을 표현했고, 〈巫山高〉는 원래 한 고취요기는 높은 무산에 올라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품인데, 王融과 劉繪는 이와 다르게 ‘陽臺神女’의 내용을 노래했다. 사조의 〈臨高台〉는 「천리 밖에선 언제나 고향 생각, 누대에 오르니 나는 새 눈앞에 있구나. 그저 외로운 새 날아가는 것만 보일 뿐, 이어진 산 그 끝을 분별할 수도 없구나. 사방에서 맑은 바람 일고,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이는데. 누가 알아주랴 지친 나그네, 여기서 고향 그리며 탄

32) 〈同沈右率諸公賦鼓吹曲名先成爲次〉의 1차와 2차 창작 간의 창화적 성격 및 ‘賦題法’ 창작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졸저, 〈古題樂府 창작에서 전통 ‘曲’ ‘辭’의 존재적 가치 - 鼓吹曲辭를 중심으로〉(《중국학보》 제60집, 한국중국학회, 2009.12) 참조.

식하는 것을(千里常思歸, 登台臨綺翼. 才見孤鳥還. 未辨連山極. 四面動清風, 朝夜起寒色. 誰知倦游者, 嗟此故鄉憶)」이라고 먼 곳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 시에 문인시처럼 화답한 심약의 〈臨高台〉는 「높은 누대에 올라도 차마 바라볼 수 없으니, 멀리 바라보면 근심만 쌓이게 될 터기에. 산은 길게 끝없이 이어지고, 강물도 아득히 흘러가는구나. 내 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낙양 남쪽 길가라네. 바라볼 수는 있어도 만날 수는 없으니, 이 괴로움 어떻게 풀으리(高台不可望, 望遠使人愁. 連山無斷絕, 河水復悠悠. 所思竟何在, 洛陽南陌頭. 可望不可見, 何用解人憂)」이다. 두 작품이 전통 한악부 〈臨高台〉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높은 누대에 올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픔을 노래한 것이 공통적이다. 이처럼 이날 집회에서 창작된 악부는 전통 고취곡사를 모의한 것이 아니라, 樂府 題目의 字意를 시의 제재로 삼아 짓는 소위 '賦題法'으로 지었다. 이 '賦題法'은 이후 악부 모의에서 애용된다.

집회에서 작품을 창작할 경우 현장에서 작품을 공개적으로 감상하고 공유하게 된다. 특히 1인의 문학 향유자를 위한 창작이 아니라, 이 고취곡 창작집회처럼 평등한 관계로 상호간 문학적 교류라는 목적이 뚜렷하고 경쟁과 유희가 개입이 되며 '同前再賦' 등으로 창작이 연속적으로 전개될 경우는 각자의 작품에 대한 공개와 비교가 필수적인데, 이때는 주로 '吟詠'을 통해 시를 공개하게 된다. 따라서 시가의 음률도 자연스럽게 증시되면서 영명신체시 시율이 발전하게 된다.

사조 심약 등이 중심이 된 문인집회에서 집체적으로 창작한 同題의 작품은 이외에도 〈同賦雜曲名〉, 〈同詠座上所見一物〉, 〈同詠樂器〉, 〈同詠座上玩器〉 등 적지 않다. 〈同賦雜曲名〉은 사조가 宣城太守일 때 작품으로, 사조는 〈秋竹曲〉(1418쪽), 檀秀才는 〈陽春曲〉(1476쪽), 江朝請은 〈淶水曲〉(1476쪽), 陶功曹은 〈採菱曲〉(1476쪽), 朱孝廉은 〈白雪曲〉(1477쪽)을 지었다. 또 〈同詠座上所見一物〉은 주변 사물 가운데 柳惲은 〈席〉(1677쪽), 王融은 〈幔〉(1402쪽), 虞炎은 〈簾〉(1459쪽), 謝朓는 〈席〉(1454쪽) 등의 제목으로 지은 영물시이다. 이 작품들은 개별적으로 〈詠席詩〉, 〈詠幔詩〉와 같이 '詠~詩'로 전해지기도 하므로, 제량시대의 수많은 영물시들은 이와 같은 문학집회에서의 집체적 창작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들의 집회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개최되었던 문학집단 모임이었음을 보여준다.

제대에는 竟陵王 蕭子良, 隋王 蕭子隆 등의 황실성원이 중심이 되어 문인들과 서로 비슷한 예술적 목표를 지향하며 고정적으로 교류하는 문예적 유대관계가 생겨났다. 경릉왕 문학집단이 대표적인데, 蕭衍·沈約·謝朓·王融·蕭琛·范雲·任昉·陸倕 등 竟陵八友가 중심인물이 되어 일종의 ‘士林’을 형성했다.<sup>33)</sup> 이들의 집회에서의 창작은 집회를 기록하듯 지어내던 초기 문인집회의 〈公宴詩〉와 전혀 다르다. 건안문인들처럼 주객관계가 바탕이 되어 나오는 찬미나 칭송은 없고, 집회와 관련된 묘사가 없으며, 순수하게 문학적 주제인 ‘鼓吹曲名’이나 ‘雜曲名’ 등을 중심으로 내용상의 새로움, 형식상 永明體의 활용 등 신 영역을 개척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재능의 계발과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문학집회에서의 창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집회에서의 창작은 집체적이고 공개적이며 경쟁적이어서, 개인의 깊은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제량 이후 영물시와 宮體詩가 크게 발전하면서 문학의 외형적 기교에 집중하고 표층적 감정표현에 머물렀던 것도 문학집단이 크게 발전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 Ⅲ. 문인집회에서의 문학창작

중국 고대의 문인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된 계층이 아니라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사이에 있는 중간계층이다. 때문에 문인집회의 목적, 문인집회가 관방 집회나 개인적 집회나 등의 집회의 성격, 집회 참여자의 신분이 군신간인지, 동료 문인간인지와 같은 집회 구성원의 성격 등은 창작의 제재, 내용, 풍격뿐 아니라 문인이 주체적 의식에 의해 진실한 감정을 작품에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다. 위진남북조의 문인집회 역시 집회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창작환경에 큰 차이를 보인다.

#### 1. 문인집회의 창작환경

문인집회는 구성원의 신분적 계층적 상하관계가 공고할수록, 문인들의 독립적이

33) 蕭繹《金樓子·說藩篇》：「(竟陵王)好文學，我高祖，王元長，謝玄暉，張思光，何憲，任昉，孔廣，江淹，虞炎，何遜，周顒之儔，皆當時之傑，號士林也。」

고 자유로운 사유를 제한하여 문학의 자유로운 발전이 힘들다. 문인집회가 시작되던 위진 시기에는 문인들이 정치권력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했고, 문인집회도 주로 황실이나 정치적 권력자에 의해 주도되므로, 문인은 권력을 중심으로 주 - 객 관계에 놓이게 되어 집회 개최자에 맞춘 '의식적' 창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上巳日, 九月九日, 元旦, 釋奠 등 조정의 의례를 기념하여 개최된 집회에서 군왕 태자 등의 명령에 의해 지어진 應詔詩, 應令詩, 奉和詩<sup>34)</sup> 집회의 목적에 맞춘 내용에 황제의 통치행위에 대한 가공송덕이 더해지고, 화려하고 전이한 묘사와 장중하고 근엄하며 엄숙한 풍격이 갖춰진다. 서원집회에서 〈公宴詩〉나 회마대 송별 집회처럼 통치자들이 개최한 연회일 경우 1인의 문학 향유자를 의식한 창작이 두드러진다.

특히 참석한 문인들은 주최자에게 절대적으로 귀속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문학창작 시에는 자신의 文才를 특별히 인정받고자 문인들끼리 일정한 경쟁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경쟁은 주로 시가의 외재적 형식미에 치중된다. 裴子野가 「매번 상서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시로 진술하여 뜻을 펼치고 신하들에게도 명하였다. …… 천하가 풍조를 좇고 사람들 역시 스스로 꾸미니, 벌레를 새기는 것 같은 재주가 당시에 성하였다」<sup>35)</sup>고 한 것은 그와 같은 창작풍토를 설명하는 것이다.

궁정의 군신집회 외에도 점차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의 '以文會友'적 문인집회가 발전한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인물 품평적 사회 풍조, 풍류와 청담 중시, 문인들의 문학적 자각과 주체의식의 강화 등이 있다. 현학과 인물품평이 유행할 때, 應貞과 夏侯玄이 오언시로 청담을 전개한 것이나<sup>36)</sup>, 문학집단이라고 하기 어려운 죽림칠현이 때로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표현했던 것이 그 예이다.

'以文會友'적 문인집회의 본격적 성행은 '풍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멋과 운치를 즐기는 행위인 '風流'가 때로는 '문학적 雅趣', 즉 '文雅', '風雅'의 뜻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태강 연간에 삼장·이륙, 양반·일좌가 크게 일어나 전왕의 뒤를 이었다. 그들에게는 풍아한 흐름(風流)이 아직 남아 있어

34) 《玉臺新詠》卷8〈繁華應令〉注曰:「凡應皇帝曰應詔, 皇太子曰應令, 諸王公曰應教」.

35) 《雕蟲論》:「每有禎祥, 輒陳詩展義, 且以命朝臣. …… 是天下向風, 人自藻飾, 雕蟲之藝, 盛於時矣」.

36) 《三國志》권21〈魏書·王璨傳〉注引〈文章敘錄〉:「(應)貞字吉甫, 少以才聞, 能談論. 正始中, 夏侯玄盛有名勢, 貞嘗在玄坐作五言詩, 玄嘉玩之」.

또한 문장의 중흥을 이루었다」<sup>37)</sup>나 「은중문의 〈고흥〉과 사숙원의 〈한정〉은 수사를 흘뜨려 놓은 문체여서 공허하고 부박하다. 비록 도도한 風流는 있으나, 문장의 내용은 깊이가 없다」<sup>38)</sup>고 했는데, 이 동진시기를 전후로 '풍류'는 문학성, 문학적 기품을 의미하며, 문학적 음풍농월, 문학적 창작과 감상행위 등 문학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문학은 곧 풍류'라는 인식으로, 지적 문화적 집회를 통해 배타적 문화권력을 소유하려는 문인들은, 풍류를 즐기기 위해 문학창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문인 집회, 문학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전에는 문인집회를 위한 문학창작이었다면, 이때는 문학창작을 위한 문인집회라 할 수 있다.

중요한 풍류적 행위 즉 문학을 위한 문인집회는 먼저 사족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사족들은 신분적 특권을 이용해 관직에 쉽게 오를 수 있었고, 또 당시 사상적 영향으로 功名에 대한 열망도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치적 열망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가족단위의 문학집회를 조직하여, 자유로운 창작과 교류를 전개할 수 있었다. 烏衣之游와 같은 사씨가족집회가 대표적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개별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는 문인집회도 생겨난다. 동진의 난정집회는 참석한 사인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出仕의 경험 혹은 出仕의 욕망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지만, 난정집회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지위의 상하관계나 名利的 계산은 없고, 그저 蘭亭 주위의 산수를 빌어 심회를 풀어내고 아울러 풍류적 문학창작도 곁들였다. 袁嶠之는 「세찬 물결에 향기로운 술, 넓고 크게 마음의 짐을 풀어낸다(激水流芳醪, 豁爾累心散.)」고 했고, 曹茂之는 〈蘭亭詩〉 「때때로 누가 근심하지 않는가, 산림 속에서 풀어내리. 아득하게 한가로움을 즐기는, 方外客을 언제나 그린다네(時來誰不懷, 寄散山林間. 尙想方外賓, 迢迢有餘閑.)」라 했다. 이처럼 동진이후에는 사족을 중심으로 주 - 객관계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평등한 비정치적 문인집회가 생겨났고, 특히 문학창작을 목적으로 문학집회도 개최되었다. 또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는 문학창작에도 반영되는데, 廬山의 白蓮社 집회에서 唱和詩가 지어진 것이 그 예이다. 문인집회 환경을 묘사하거나 개인적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던 차원에서 나

37) 鐘嶸 〈詩品序〉: 「太康中, 三張二陸 兩潘一左, 勃爾俱興, 踪武前王, 風流未沫, 亦文章之中興也」

38) 《文心雕龍·才略》: 「殷仲文之孤興, 謝叔源之閑情, 并解散辭體, 縹渺浮音, 雖滔滔風流, 而大澆文意。」

아가, 문인집회에서 문인 상호간에 창화시를 주고받으며 교분을 쌓게 됨으로써, 시가 창작이 교류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자 목적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시가 창작이 능동적 관계 맺기에 사용된 것으로 문인집회에서 시가창작이 더욱 중시되게 된다.

제량시대에 와서는 ‘龍門聚’ ‘蘭臺聚’와 같은, 문학관념 혹은 문단의 영수를 중심으로 한 문인모임이 본격적으로 생겨난다. 「임방이 돌아와 어시중승이 되자 후진들은 모두 그를 받들었다. 그때 彭城 劉孝綽·劉苞·劉孺, 吳郡 陸倕·張率, 陳郡 殷芸, 沛國 劉顯 및 到漑·到洽이 매일 수레를 타고 왔는데, ‘난대의 모임’이라고 불렀다.」<sup>39)</sup> 심약 역시 제량 문단의 영수였는데, 유협도 《文心雕龍》을 완성하고 심약에게 보여 인정을 받고자 했으나 그를 만날 수가 없자, 책장수를 가장해서 만났다.<sup>40)</sup> 이처럼 문단의 영수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문인집단이 형성된 것은 문학창작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반복적으로 개최된 결과이다. 비정치적 문인집회를 통해 문학적으로 소통하고 절차탁마하면서,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문화적 권력을 형성하며 문학집단이 탄생한다.

## 2. 집체창작과 문학형식

문인집회에서 문학창작은 주로 주최자의 出題와 참가자들의 창작으로 진행된다. 출제란 창작할 작품의 내용과 형식과 관련한 일정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내용과 관련하여 釋奠祭와 같은 당일의 특정한 행사나 절기를 기념하여 창작하게 하거나, 고취곡 명, 악기 명, 雜曲 名 등과 같이 일정한 주제를 인위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창작하는 것이다. 후자는 문학집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형식에 대한 제한은 5언시 혹은 4언시, 韻의 수, 특정한 운을 사용하는 限韻 등의 방법이 있다. 또 출제자가 직접 창작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詩題와 韻이 제시되어도 문학창작을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詩體가 등장

39) 《南史》 권48 〈陸倕傳〉: 「(任)昉爲中丞, 預其宴者. 殷芸, 到漑, 劉孺, 劉顯, 劉孝綽及陸倕而已, 號曰龍門聚.」 《南史》 권25 〈到漑傳〉: 「昉還爲御史中丞, 後進皆宗之. 時有彭城劉孝綽, 劉苞, 劉孺, 吳郡陸倕·張率, 陳郡殷芸, 沛國劉顯及漑·洽, 車軌日至, 號曰蘭臺聚.」

40) 《南史》 권72 〈劉勰傳〉: 「旣成, 未爲時流所稱. 勰欲取定于沈約, 無由自達, 乃負書候約于車前, 狀若貨鬻者. 約取讀, 大重之, 謂深得文理, 常陳諸幾案.」

한다. 同題詩, 賦得體詩, 唱和詩 및 奉和詩, 聯句 등이 대표적이다.

위진시대 문인집회에서 同題詩를 많이 지었다. 同題詩는 창작의 同時性和 제목과 주제의 일치성을 지니므로, 상호 간의 동질성 및 집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文才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건안문인들의 西園集會에서 지어진 〈公宴詩〉, 金谷集會에서의 〈金谷集詩〉, 蘭亭集會에서의 〈蘭亭詩〉 등이 대표적 同題詩 이다. 후대의 영물시 가운데 ‘同詠~’ 역시 同題詩로 볼 수 있다. 또 황제나 황태자, 왕들이 詩題를 내고, 문인들이 應詔詩, 應令詩, 應教詩, ‘待~’ 등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가 특정한 상황 혹은 주제에 맞추어 동시에 짓게 되므로 同題詩가 많다. 雅正한 풍격으로 황실에 대한 가송이 주를 이룬다.

同題詩가 같은 주제 혹은 제재로 시를 짓는 것이라면, ‘賦得體’는 각각 다른 주제나 제재 혹은 운을 분배하고 시를 짓는 것이다. 양진의 문인집회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문학창작을 목적으로 모인 문인집회에서 즉흥적으로 시제를 분배하여 상호간의 문재를 비교하는 것인데, 경쟁과 유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상술한 齊代의 〈同賦雜曲名〉, 〈同詠座上所見一物〉 등 역시 참석자가 각각 서로 다른 잡곡명 혹은 주변 사물 등을 선택하여 시가를 창작한 것이다. ‘同賦~’, ‘同詠~’의 제목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賦得體’에 가깝다.

同題詩나 賦得體 창작방식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문인들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창작하는 것이라면, 창화시는 먼저 지어진 특정한 작품에 대해 2차적으로 和唱하는 방식이다. 문인집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최자가 먼저 지은 시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和詩를 짓는 형식이 대부분인데, 주 - 객관계가 아닌 비교적 공평한 관계에 적합한 형식이다. 화시 작가는 우선적으로 唱詩 작품 자체를 염두에 두고, 그 구법이나 어휘, 소재, 의경 등에서 창시와 유사하게 재창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마지막 두 구에서 창시 작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표현한다.

문인집회에서 창작된 작품은 집회 참석자 전부에게 공개되어 함께 감상하고 함께 평가한다. 따라서 주로 집회환경, 집회의 즐거움과 동지의식, 주최자에 대한 감사 등 집회와 관련된 객관적 묘사가 중심이고, 작가 개인의 감정은 표현되지 않거나 아주 절제된다. 창화시의 경우, 화시는 창시 작자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창시에 대한 화답으로 표현 정서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공개적인 집회에 적합하고, 또 현장에서 지어진 창시에 대한 화시이므로 문인들의 실제적인 문학적 재능을 평가하기에도

좋은 방식이며, 창시와 화시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문인교류의 방식이자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문인집회에 아주 적합한 형식이다. 시가로 창화하며 교류하는 방식은 이후 문인집회에서 가장 애용되는 방식으로 자리한다.

사조가 宣城太守로 떠날 때 심약 범운 왕용 등이 〈餞謝文學〉을 짓고, 이에 대해 사조가 〈和沈右率諸君餞謝文學〉라는 화시를 지었다. 또 고취곡명 창작집회에서 ‘同前再賦’했던 2차 창작은 1차 창작에 대한 상호간의 창화였다. 謝朓의 첫 번째 작품〈臨高台〉에 심약이 酬唱을 했고, 심약의 〈芳樹〉에 대해 사조가, 劉繪의 〈有所思〉에 대해 왕용이, 왕용의 〈巫山高〉에 대해 유희가 창화했다.

왕실에서도 唱和 방식이 사용된다. 군신간의 應酬 交際에 사용된 奉和詩가 그것인데, 奉和詩는 同題나 分題로 짓고 제재나 형식이 한정되며, 우아하고 재치있는 언어로 쓰여진다. 應制詩나 應令詩, 應教詩와 결합하기도 한다.

문인집회의 집체성이 가장 잘 발휘된 것은 聯句의 창작이다. 聯句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1구 혹은 4구씩 지어 한 수의 聯句詩를 완성하는 것이다. 상술한 謝安, 謝朗, 謝道韞 등 사씨 집안 자제의 〈詠雪聯句〉, 宋 孝武帝가 劉義恭, 劉誕, 劉元景, 謝莊, 顏師伯 등과 지은 〈華林都亭曲水聯句效柏梁體詩〉 聯句가 그 예다. 특히 각 4구씩 지은 聯句는 지은이에 따라 각각 나누면 5언 절구에 가까워진다.<sup>41)</sup>

이상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정서적 교감, 오락, 교류를 통한 동질의식의 고취를 추구하지만, 참여 문인들은 필연적으로 경쟁의식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집회의 주도자가 의도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집회의 유희성이 커지고 상호간 절차탁마라는 긍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경릉왕 자랑은 일찍이 밤에 학사들을 불러 모아, 초에 불을 붙이고 시를 짓게 했는데, 4운시 짓는 시간을 초 한 마디 녹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 문염이 ‘초 한 마디 타는 시간에 4운의 시를 짓는 것이 뭐가 어려운가!’ 하였다. 俞楷 江洪 등이 구리 바리때를 치자 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울림이 사라질 무렵 시를 지어내니 모두 불만 했다」<sup>42)</sup> 경릉왕이 정해진 시간 내에 ‘4韻’ 즉 8구의 시가를 짓도록 한 것은 집회의

41) 王士禎《帶經堂詩話》卷1: 「聯句昔人各賦四句, 分之自成絕句, 合之乃爲一篇, 謝朓·范雲·何遜·江革輩多有此體。」

42) 《南史》卷49 〈王僧孺傳〉: 「竟陵王子良嘗夜集學士, 刻燭爲詩. 四韻者則刻一寸, 以



특성상 시간의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창작 시간을 제한하여 문인들의 文才를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sup>43)</sup> 또 沈約과 謝朓 등이 ‘鼓吹曲’名으로 시를 지어 완성되는 대로 순서를 정한 작품 역시 작품성뿐 아니라 창작 시간도 경쟁과 평가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집회에서 창작된 작품은 현장에서 작품을 공개적으로 감상하고 공유하게 된다. 이때는 시가의 연행방식인 ‘吟詠’을 하게 되므로, 창작시에는 시가의 리듬감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면서 영명신체시 시율이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집회에서는 문인간의 비교나 경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 경쟁은 주로 시가의 외재적 예술성에 집중한다.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신변’을 추구하면서<sup>44)</sup> 문인집회가 상호간 표현기교의 학습과 교류, 경쟁의 장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영명체 시가의 5언8구화, 운율화 등 시가의 격률화가 촉진되었다. 「文采는 百字의 대우를 아름답게 꾸몄고, 가치는 한 구의 기묘함을 다투었다. 감정은 반드시 지극한 모습으로 물체를 묘사했고, 문사는 반드시 힘을 다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다」<sup>45)</sup>는 것은, 문학이 유희주의로 흐르게 된 결과를 표현한 것인데 君臣관계나 문인집회 중심의 집체적 창작과 무관하지 않다.

### 3. 집체창작과 문학내용

문인집회 문화가 형성되던 시기에는 문학창작은 집회의 절대적 목적이 아닌 의식행위의 하나였다. 작품 내용 역시 문인집회가 공식적이며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가

此爲率. 文琰曰: ‘頓燒一寸燭, 而成四韻詩, 何難之有!’ 乃與令楷·江洪等共打銅鉢立韻, 響滅則詩成, 皆可觀覽。」

43) 위진시대 문인집회에서는 賦가 많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집회의 시간적 유한성, 상호 경쟁, 유희성 추구 등으로, 점차 부보다 시가 많이 지어졌다. 시는 짧은 몇 개의 구에 다양한 시율을 응축할 수 있어 부보다 문인들의 문학적 재능을 발위하기에 적합했다. 따라서 남북조시대에는 부 창작이 절대적으로 줄고, 짧은 소부가 발전하며, 부의 시화가 촉진된다.

44) 《南齊書》卷33〈文學傳論〉: 「五言之制, 獨秀衆品. 習玩爲理, 事久則瀆, 在乎文章, 彌患凡舊. 若無新變, 不能代雄。」

45) 《文心雕龍·明詩》: 「儷采百字之偶, 爭價一字之奇, 情必極貌以寫物, 辭必窮力而追新。」

답에, 집회의 목적과 시기, 장소, 집회의 환경이나 분위기 묘사, 주최자에 대한 감사와 경모 표시 등 紀事적 성격이 강했다. 특히 집회의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문인집회가 실내에서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西園, 金谷園, 蘭亭, 樂遊園처럼 자연에서 열리는 경우에는 창작된 작품에 자연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조식의 〈公宴詩〉에 「밝은 달은 풍경을 맑게 씻어 내고, 별들은 들쭉날쭉 벌였네. 가을 난초는 긴 언덕을 덮었고, 붉은 꽃은 푸른 연못을 덮었구나. 물 속 고기는 맑은 물살 위로 튀어 오르고, 아름다운 새는 높은 가지에서 지저귄다(明月澄清景, 列宿正參差. 秋蘭被長坡, 朱華冒綠池. 潛魚躍清波, 好鳥鳴高枝.)」가 그 예이다. 또 반약의 〈金谷集作詩〉에 「굽이도는 시내는 구불구불 험하고, 높은 비탈은 가파르다. 초록빛 연못 잔잔하고, 푸른 버들은 하늘하늘. 솟구치는 샘물엔 용비늘 물결, 넘치는 물살은 구슬 되어 휘날린다(迴谿縈曲阻, 峻阪路威夷. 綠池泛淡淡, 青柳何依依. 濫泉龍鱗瀾. 激波連珠揮)」나 孫綽의 〈蘭亭詩〉의 「바람이 굽이도는 물가로 불어오고, 구름이 멈춰 온 물가에 그늘이 졌다. 앵무새 脩竹에서 지저귀고, 한가로운 물고기 물결을 희롱한다(流風拂枉渚, 停雲蔭九臯. 鶯語吟脩竹, 游鱗戲瀾濤.)」 등은 산수시의 일부라 해도 손색이 없다. 특히 문인집회의 성격상 상호간 경쟁심리가 작용하여 산수에 대한 관찰과 묘사가 갈수록 섬세해지고, 노장사상의 영향으로 산수 그 자체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인식하면서, 산수시의 탄생을 예약하게 된다. 謝靈運의 산수시 역시 ‘文章賞會’하던 ‘謝惠連, 何長瑜, 荀雍, 羊璿之 등과 산수유람 중에 나온 것이다.<sup>46)</sup>

공개적 집단적인 문인집회의 환경적 특성상, 문학의 내용 전개에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공개적인 창작인 까닭에 작가 자신의 정서나 의식을 독립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타자를 철저히 의식하고 표현하게 된다. 때문에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또 집체적 문학창작은 집단적인 까닭에 공적인 정서, 보편적 정서를 표현해야 쉽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때로는 집단 구성원끼리 유사한 정서나 意氣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건안문인들의 건안풍골도 집단적 교류와 문학창작을 배경으로 형성된 시대적 우환의식과 입공 열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집체적 공개적 문학창작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영물시와 宮體

46) 《宋書》 권67 〈謝靈運傳〉: 「靈運既東還, 與族弟惠連·東海何長瑜·潁川荀雍·太山羊璿之, 以文章賞會, 共爲山澤之遊, 時人謂之‘四友’。」

詩가 특히 발전하게 된다. 영물시는 개인적인 정서나 사상 표현보다는 특정한 물체의 물상을 집중적으로 묘사한다. 宮體詩는 무희나 여인의 요염한 자태를 섬세하게 묘사하는데 중점을 둔다. 梁 中大通 연간 이후 蕭剛문학집단이 중심이 되었던 시체이다. 영물시나 宮體詩 모두 개인적 정서 보다는 문학적 기교에 치중할 수 있는 시체이다. 실제로 제량이후의 영물시나 宮體詩는 정서적 사상적 깊이가 상당히 부족하다. 대부분 집체적 공개적 환경에서의 창작이라 할 수 있다.

문인집회를 통한 문학적 교류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 창화시다. 교류와 문학창작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화시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 편의 창시에 대해 다수의 참가자들이 창자와 각각 일대일의 관계가 되어 화시를 짓는다. 하지만 경쟁이 수반되는 문학집회의 특성상 작품이 모두 공개되므로, 결국은 一對多의 관계가 되므로 다수의 참가자를 염두에 둔 작품을 짓게 된다. 즉 형식상 일대일의 창화이나, 내용상으로는 일대다의 창화가 이루어지면서, 화시는 창시 혹은 창자에 대한 일대일의 개인적 정서가 아닌 참가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상과 같이 문인집회에서의 집체적 창작은 문학의 서정성을 강화하긴 힘들다. 그러나 작품에 공리성, 사회적 교류성, 유희성 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국의 전통 시가는 서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용성을 갖는다. 시가를 통해 상호 교류하며 자신의 文才를 알리거나 타인의 재능을 평가했다. 이와 같은 시가의 사회적 실용성은 바로 문인집회를 통해 확립된 문화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문인집회는 고급 정신문화의 창달과 전승을 위한 중요한 교류의 장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술행위가 시가창작이었다. 위진의 문인집회는 주 - 객관계로 구성된 정치성 문인집회였으나, 동진을 전후하여 '風流'가 '문학적 雅趣', 문학적 음풍농월로 인식되면서, 조정의 각종 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궁정 집회와 별개로, 사족 문인이 중심이 된 '以文會友'적 문인집회가 생긴다. 제량시대에 와서는 문단의 영수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문학집단이 형성되어, 문학적으로 소통하고 절차탁마하면서 배타적인 문화적 권력을 형성한다.

문인집회에서 문학교류는 집단성 공식성을 띠고 공개적이며, 비교와 경쟁이 수반된다. 때문에 문학창작에서는 타자를 의식한 보편적 감정을 주로 표현하고, 주체적 감정은 배제된다. 개인의 감정보다는 외형적 묘사에 치중할 수 있는 궁체시나 영물시가 많이 지어지는 이유이다. 또 집회에서 집체적 문학창작은 진행방식에 따라 同題詩, 賦得體, 唱和詩, 聯句 등의 형식으로 지어지고, 집회에서 창작된 작품은 현장에서 작품을 공개적으로 감상하고 공유하게 된다. 이때는 시가의 연행방식인 '吟詠'을 하게 되므로, 시가 창작시에 시가의 聲律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면서 영명신체시 시율이 발전하게 된다.

중국의 시가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가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개인적 기능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실용성을 갖기 때문이다. 시가를 이용해 자신의 文才를 알리거나 타인의 재능을 평가하고, 과거의 시험형식으로 채택되기도 했으며 서신 대응으로도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시가의 사회적 실용성은 바로 문인집회나 문인 간 교류에서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遼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中華書局, 1995.  
 曹丕 著, 夏傳才 注, 《曹丕集校注》, 中州古籍出版社, 1992.  
 謝朓 著, 曹融南校注, 《謝宣城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1.  
 沈約 著, 陳慶元校箋, 《沈約集校箋》, 浙江古籍出版社, 1995.  
 劉義慶 撰, 劉孝標 注, 余嘉錫 箋疏, 《世說新語箋疏》, 上海古籍出版社, 1995.  
 鬱沅、張明高 編選, 《魏晉南北朝文論選》, 人民文學出版社, 1996.  
 吳文治 著, 《中國文學史大事年表》, 黃山書社, 1987.  
 曹道衡·劉躍進 著, 《南北朝文學編年史》, 人民文學出版社, 2000  
 川合康三, 심경호 역, 《중국고전시, 계보의 시학(中國のアルメ系譜の詩學)》, 이회문화사, 2005.6.  
 胡大雷 著, 《中古文學集團》,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阮忠 著, 《中古詩人群體及其詩風演化》, 武漢出版社, 2004.  
 郭英德 著, 《中國古代文人集團與文學風貌》,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8.  
 吳在慶, 《論唐代文士的集會宴游對創作的影響》, 《廈門大學學報》, 2003년 5기, 2003.

권석환, 〈중국 강남 지역 雅會文化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중국문학연구》 제 32집, 2006.6.

### 【中文提要】

古代中國文人集會是創造和傳承高級精神文化的一個重要交流場合，其集會的交流行爲以文學創造爲最重要。東晉以後，風流這個概念被認識爲文學上的‘風雅’或者吟風弄月，故士族文人頗爲招開以文學創作爲目的的文人集會，由此文人集團逐漸脫離政治性，形成文學集會。蘭亭集會最爲典型。

在文人集會上的文學交流都具有集體性、公開性特征，集會成員之間也常存在着互相競爭的機制。這樣的集會環境就對文學內容和形式起着決定性的影響。就對詩歌形式上的影響而言，文人爭求詩歌形式和修辭上的新變，因此能促進形成四韻八句、聲律等的永明新體詩，也促進同題詩、賦得體以及應詔、奉和、聯句等詩體的發展。不過由集會的公開性，文人不容易表現自己的真實情感和主體意識，只能表現出普遍性情感和意識。齊梁時期詠物詩和宮體詩的大量出現也就與文學集會的盛行有關，詠物詩和宮體詩很少表現感情因素，却側重於描寫事物或女人的形象，因此很適合於集體的公開的文學創作。

中國詩歌特別發展，其原因不僅在於詩歌固有的抒情功能，也在於詩歌所具有的功用性，就是可以以詩歌評價人的文才，以詩歌能宣揚自己的文才，也可以以詩歌代替書信，這樣的詩歌功能就由文人集會上的集體創作所形成的。

### 【主題語】

文人集會，文學集會，西園集會，蘭亭集會，唱和詩

투고일: 2011. 1. 23 / 심사일: 2011. 2. 1~2. 12 / 게재확정일: 2011. 2. 15